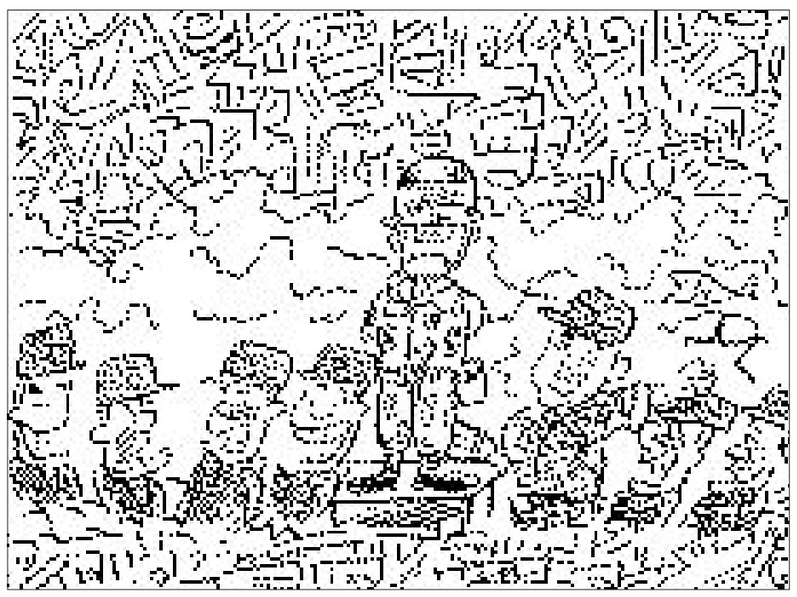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 87 >



찾아보세요 셔틀콕, 갈매기, 물고기, 다리미, 펜촉, 양주잔, 아이스크림, 담배파이프, 열대어

말뜻 못 알아듣는 훈련병

교관이 이제 막 군대에 입대한 훈련병들을 불러모아 놓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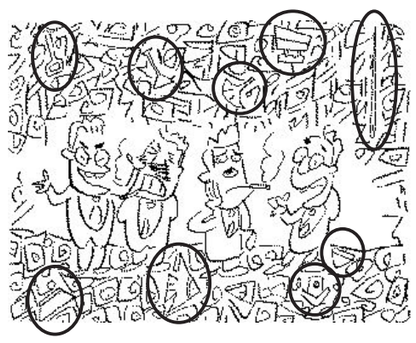
"너희들은 이제 더이상 사회인이 아니다. 앞으로 사회에서 쓰던 말투는 버려라. 군대에서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와'까'로 끝을 맺는다. 그렇습니다. 저 말씀이십니까? 등과 같이 말이다. 모두 알아 듣겠느냐?"

그러자 훈련병 하나가 자신있게 "알았다!"하고 대답했다.

화가 난 교관이 "정신나간 녀석, 그럴 때는 알겠습니다라고 해야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훈련병이 다시 대답했다.

"알았다니까!"



지난주 정답

열대어, 병따개, 새집, 다리미, 대접, 팽이, 바늘, 양주잔, 은행잎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 김우진〈광주시 북구 운암동〉 윤효진〈광주시 북구 두암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뭉크의 걸작 '절규' 도난

잘 팔리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훔쳐가는 걸까.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쉽게 팔지도 못한다는 미술품 도난 사건을 접할 때마다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다. 도둑질 자체에 쾌감을 느끼는 걸까, 세계적 작품을 훔쳤다는 명예욕, 자신 혼자만 보겠다는 욕심 때문일까.

3년전인 지난 2004년 8월 22일 전 세계 언론이 떠들석했다. 대낮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뭉크 박물관에서 발생한 에드바르드 뭉크의 걸작 '절규(The Scream)'도난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이 사건을 지난 100년간 세상을 뒤흔든 '세기의 범죄' 25건에 올렸다.

당시 범인들은 관람객들 앞에서 박물관 직원을 총으로 위협한 뒤 '절규'와 뭉크의 또 다른 걸작 '마돈나'를 떼어내 도주했다. 공교롭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 도난 사건 공식 발표 일도 지난 1911년 8월22일이다.

인간 내면의 불안과 공포를 형상화했다는 '절규'는 명성에 걸맞게 자주 표적이 됐던 작품. 지난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개막일인 2월 12일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미술관에서 한 차례 도난당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3개월만에 되돌아왔는데, 범인들은 정부를 상대로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체포됐다. 그림은 손상되지 않았다.

'절규'는 뭉크가 1893년에 유화와 파스텔화, 판화 등으로 여러 버전으로 그린 작품 중 하나로, 2004년 도난된 작품은 마분지에 유채를 사용한 유화다. 값을 매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작이다.

5세때 어머니를, 14세때 누나를 잃은 뭉크는 그 자신 또한 병약했으며 이 같은 환경은 그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유년기에 경험한 어머니와 여동생의 죽음은

뭉크의 '절규'.

삶과 죽음, 악몽, 공포, 우수를 강렬한 색채로 화폭을 가득 채워 표현하는 계기가 됐다.

'죽음과 지옥의 화가'라는 별명이 따라다닌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뭉크가 남긴 창작 노트에도 '절규'를 "2명의 친구와 길을 걷고 있을때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변하면서 탈진 상태를 느꼈다. 검푸른 피요르드와 하늘위로 혀와 같은 불꽃이 일었다. 내 친구가 다가왔을때 나는 불안감으로 몸을 떨었고, 자연을 꿰뚫는 끝없는 절규를 느꼈다"고 적었다. 7만 건에 이르는 감청을 하며 힘을 쏟은 탓일까. 도난당한 작품은 2년 만인 지난 2006년 8월 회수됐다. 당시 경찰은 회수 경위 등은 밝히지 않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뉴스퀴즈

78. 완도 출신으로 미국프로골프(PGA)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 선수의 인생이 드라마로 만들어집니다. 필마픽쳐스는 최근 이 선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탱크의 눈물'이라는 20부작 드라마의 제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제작사는 "일반인이 잘 모르는 감춰진 이야기들, 인간으로서 숨겨진 고뇌와 열정 등을 드라마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탱크'로 불리는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최경주 ②앙드레 김 ③선동렬 ④미셸 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2일(음 7월 10일 戊子)

子 36년생 뜻밖의 술자리는 피하라. 48년생 믿는 도끼가 위협하니 세심하게 살펴보라. 60년생 합자 동업 신규투자는 절대 금하라. 72년생 요로계통이 의심스러우니 건강검진을 받아라. 84년생 새 문서를 잡고 가내는 경사로다. 행운의 숫자 : 07, 12

丑 37년생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된다. 49년생 겉으로는 쉬워도 이루기는 어렵도다. 61년생 정은 있으나 만나지 못하고 안타까울 뿐이로다. 73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다. 85년생 겉은 화려하나 실속은 없으니 자중하라. 행운의 숫자 : 11, 18

寅 38년생 강물이 합류되니 파도소리가 높다. 50년생 직장에서 신중하게 처신하고 가정에서 화목 하라. 62년생 여성은 먼저 화해하고 지출은 가장과 의논하라. 74년생 자신을 낮춰라. 행운의 숫자 : 03, 04

卯 39년생 협력자를 만나는 격으로 도움을 받는다. 51년생 집안 안정은 지속되나 참을 일이 생긴다. 63년생 만나는 사람마다 오래가지 못하니 선택을 잘해야 한다. 75년생 이웃을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13, 15

辰 40년생 큰 욕심을 내지 않는 한 좋은 날이다. 52년생 고통이 나타날 수 있으니 분수를 지켜야 한다. 64년생 어려움은 없으나 친인척의 변동으로 걱정은 있다. 76년생 튼튼한 제방도 쥐구멍으로 뚫린다. 행운의 숫자 : 05, 14

巳 41년생 가정의 우환과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 53년생 주변의 기만과 허황된 문서를 조심해야 손실을 피한다. 65년생 부부간의 이해있는 대화와 자녀를 살펴보라. 77년생 이성 보다 친구를 만나라. 행운의 숫자 : 16, 13

午 42년생 식구와 떨어져 살아야 할 경우가 생기지만 좋은 일이다. 54년생 오늘 하루는 외근보다는 내근을 하라. 66년생 많은 일이 순조롭고 새롭게 주변의 도움이 발생한다. 78년생 눈을 조금만 낮춰서 현실을 보라. 행운의 숫자 : 16, 23

未 43년생 조용한 호수에 돌을 던지니 결과는 반반이다. 55년생 새로운 사업이나 허황된 문서에 눈물나니 신뢰를 회복하라. 67년생 과한 투자만 없으면 결과는 좋으리라. 79년생 오랫동안 기다리던 消息이 온다. 행운의 숫자 : 2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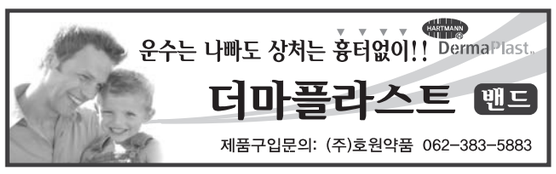
申 44년생 옛 일이 튀어나와 괴로움을 줄 수도 있다. 56년생 가정에 소란사가 발생하나 조용히 해결난다. 68년생 처음에는 당황하나 흉이 복으로 변하는 형상이다. 80년생 허황된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0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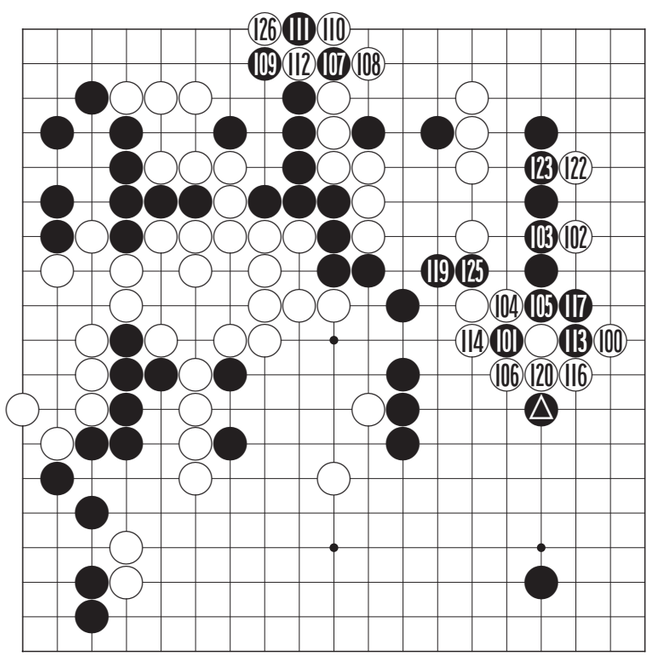
酉 45년생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삼사일언하라. 57년생 감정은 털어버리고 화해를 시도하라. 69년생 사고로 미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고 또 신중 하라. 81년생 연인으로부터 전화가 온다. 행운의 숫자 : 19, 20

戌 46년생 겉으로는 좋으나 속으로는 싫은 사람이 생긴다. 58년생 자신과 직장사이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70년생 아늑한 보금자리이나 불편한 사람이 같이 있다. 82년생 오늘은 밖에서 차를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11, 17

亥 47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고 협조자가 나타난다. 59년생 상반된 적장을 만난 격이니 백사를 신중해야 한다. 71년생 의외의 득재와 집안의 안정이 있다. 83년생 독신자는 새로운 연인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22, 27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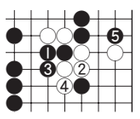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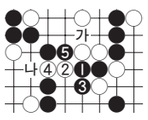
제16회 랑일배 직장대항 단체 4회전

약점을 둘러싼 공방 6보(100~126)

白 김영수 5단 (호남 교사회) 黑 박광주 5단 (포스코)



〈참고도1〉



〈참고도2〉

흑 ▲의 협공에 다시 100으로 잠수한 수가 당연하면서도 좋은 수였다. 이때가 흑으로서는 고민되는 장면이다. 위아래의 뒷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동시에 양쪽을 보강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내야만 한다.

박광주 5단이 고심끝에 둔 흑 101이 강수였다. 백의 허점을 공략하여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

김영수 5단은 여전히 노타임으로 응수하고 있다. 고민도 없이 104, 106으로 한점을 몰아버렸다. 이 수는 중앙 흑 대마에 끼워가는 약점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다. 박 5단이 상변에 107로 젖혀간 것도 끼우는 수를 의식한 것인데 이 수로는 '참고도1'의 흑 1로 도망갔어야 했다. 백은 2에 이을 수밖에 없고 그때 5까지 둔다. 백 2로 '참고도2'의 2로 두어오면 흑 5로 끊는 수가 있다.다음 '가'와 '나'가 맛보기가 된다.

흑 119까지 복잡한 패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115~107. 118~112.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바둑소식

조혜연 7단 원익배 첫승

조혜연 7단이 지난 20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기 원익배 십단전 본선 1회전에서 김대희 3단을 꺾고 2회전에 진출했다.

조 7단은 2회전에서 박정환 2단-최병환 2단의 승자와 3회전 진출을 다툰다. 1회전에서 홍민표 6단을 제압한 이정우 6단은 장주주 9단과 2회전에서 격돌한다.

현재까지 본선 대국을 치른 결과 조혜연, 이정우, 박영훈, 원성진 등 모두 10명의 기사가 1회전을 통과했다. 전기대회 우승·준우승을 차지했던 안조영, 백홍석은 8강전부터 출전한다. 대회 우승상금은 3천500만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975>

May I help you?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A : Room service. May I help you?
B : Will you send up two coffes and two sand wiches, please?
A : Yes, sir. What's the room number?
B : It's 202.
A : Right away, sir

A : 룸서비스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B : 커피 두 잔, 샌드위치 2개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A : 네, 알겠습니다. 손님, 방 번호가 어찌 됩니까?
B : 202호인데요.
A : 곧 가겠습니다, 손님

* Will you send up~? = Will you bring up~?
* right away : 즉시, 곧장
* 아침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 Will you bring some breakfast please?
* 들어가도 됩니까? = May I come in?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975>

仕様(しよう)どおりに作(つく)られていなかったそうですよ。

규정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A : 今回(こんかい)の新製品(しんせいひん), 検査(けんさ)に通(とお)らなかったそうですね。
B : ええ、一部(いちぶ), 仕様(しよう)どおりに作(つく)られていなかったそうですよ。
A : そうですか。じゃ、作(つく)り直(なお)しということですか。
B : ええ、そうなる可能性(かのうせい)が高いですね。

A : 이번 신제품 검사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B : 에에. 일부, 규정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A : 그렇습니까. 그럼, 다시 만들어야되는 것입니까.
B : 에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今回(こんかい) : 이번
通(とお)る : 통과하다
仕様(しよう)どおりに : 규정대로. 처방대로
作(つく)り直(なお)し : 다시 만들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165>

时间不多了，得马上准备

시간이 많지 않네요, 바로 준비 해야겠네요

A: 老板让我通知你，上海有个展销会，
Lǎobǎn ràng wǒ tōngzhī nǐ, shànghǎi yǒu ge zhǎnxiāohuì,
让你准备参展的事情。
ràng nǐ zhǔnbèi cān zhǎn de shìqing.
B: 什么时候？
shènme shíhou?
A: 两个星期以后。
Liǎng ge xīngqī yǐhòu.
B: 哦，时间不多了，得马上准备。
ó, shíjiān bùduō le, děi mǎshàng zhǔnbèi.

A 사장님께서 상해에 전시회가 있다고 당신에게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B 언제요?
A 2주 후에요.
B 오, 시간이 별 저거 않네요, 바로 준비 해야겠네요

展销会 [zhǎnxiāohuì] 전시회
参展 [cānzhǎn] 전시회에 참가하다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7~8

한자 이야기 <592>

薄氷(박빙)

엷을 박, 얼음 빙

박빙(薄氷)은 살얼음이라는 뜻이다. 엷은 얼음을 밟듯이 세상의 처세(處世)에 조심하라는 뜻으로는 '여리박빙(如履薄氷)'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한다.

겨울 내내 꽁꽁 얼었던 연못이 봄날이 되면서 살얼음이 되어 있어 밟기에 위기감을 느끼는 것을 비유한다.

흔히 선거(選擧)나 스포츠에서는 '박빙의 승부'라는 표현을 자주 접한다.

근소(僅少)한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사실은 서로 실력이 엇비슷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박빙(薄氷)'이 한자어 인줄 모르면 정확한 의미파악이 곤란하게 된다.

박빙의 접전(接戰)에서 힘겹게 승리한 경우를 '신승(辛勝)'이라고 하는데, 이긴 쪽은 기쁘지만 진 쪽은 승복(承服)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매우 두려운 듯이 조심하고(戰戰兢兢), 깊은 연못에 임한 것 같이 하고(如臨深淵), 얇은 얼음을 밟는 것 같이 하라(如履薄氷)."고 경계하였다. (詩經, 小雅篇, 小旻)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